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말씀: 사도행전 4:32-5:16

요절: 사도행전 4:32 **믿는 우리가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계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인류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범칙이다”라고 요약하였습니다. 즉 한 민족과 국가에 시련과 역경이라는 도전이 다가올 때 이를 어떻게 응전하는가에 따라서 그 민족이나 국가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인생이나 교회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어떤 개인이나 조직이든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내부적, 외부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잘 극복하면 더욱 견고해지지만 그렇지 못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3천 명, 5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를 가만히 보고 있지않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자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기부터 많은 시련과 핍박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어떤 시련과 핍박에 부딪혔으며 초대 사도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외적인 핍박을 승리한 교회가 내부적으로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었으며 초대 사도들은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힘 있는 복음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배우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초대교회의 믿음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초대 교회의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4:32-37)

32절부터 35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삶은 재물과 자기 소유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32)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데에서만 한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물질생활에 있어서도 한마음 한 뜻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예배나 기도와 같은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생활과 같은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도 대변혁을 가져오는 역사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였는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애착이 사라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通用)하였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34a)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입니다.**(34b,35a) 사도들은 이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었습니다.**(35b) 자연스럽게 분배정의가 실현되고 그러다보니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고 모두가 풍족해졌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지구상에 있는 재화(財貨-재물)를 모두 균등하게 나누었다면 한 사람도 굶주리지 않고 모두 다 풍족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류가 먹고 살기에 풍족할 만큼 공급하시지만 사람들 내면의 탐욕(貪慾)이 언제나 이를 가로막아서 지구상의 절반 이상이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 내면의 탐욕을 제거하였고 그리하여 완전한 분배정의가 실현되어 모두 다 풍족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뤄지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33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큰 권능(great power)’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여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much grace)’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삶에 변화가 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자기 물건과 특히 재물(돈)입니다. 장막생활 하면서 써빙 안하는 것은 용서가 되어도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쓰는 사람을 보면 용서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장막에 냉장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끔 자기가 먹기 위해 좋아하는 딸기를 사다가 넣어 두었는데, 누가 말도 없이 꺼내 먹으면 기분이 안 좋겠지요? 특히 재물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 사이도 원수지간으로 만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물건을 통용(通用)하고, 특히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복음 역사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희생하였습니다. 값싼 볼펜, Binder에서부터 값비싼 Computer, Note Book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Correction Tape, 넥타이, 우산, 신앙서적, 신발, 양말, 시금치, 마늘, 양파 등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물질까지도 서로 아끼지 않고 나누어 썼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기 전의 그들은 물질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로마 식민 통치하에서 힘들게 살아가느라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모두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색하고 욕심이 많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것을 꾸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은 그들은 변화하였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제자를 양성하며 세계선교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 받은 그들은 관심사와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졌으며 헌신적이고 희생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것은 기본이고 남의 것도 할 수만 있으면 자기 것이라고 우겨도 살기 어려운 세상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활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33)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들의 소망은 세상의 재물을 모으는 데 있었습니다. 저금통장 늘어나는 것이 소망이요, 기쁨이었습니다.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굴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심이 되었지만, 돈이 없으면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어도 더 많은 사람을 보면 우울해졌습니다. 그들은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누구도 돌볼 줄 몰랐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것에 손해가 가면 싸우기 일쑤이고 손해의식에 시달렸습니다. 늘 신경질적이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는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 주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걷히면서 그들 앞에 영원한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한 점과도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땅에서 한몫 잡고자 숨 막히게 경쟁하던 인생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돈과 이기심의 밧줄에 묶여 있던 데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기 밖에 모르던 데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형편이 힘들고 장막생활, 원룸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

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open하고 씨빙을 해서 동역자들과 양들을 초청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욕심을 버려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복잡한 세상을 떠나 산 속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엄격한 율법을 적용해서 욕심을 통제해 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산 속에서 명상할 때는 좀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세상살이 속으로 들어오면 여지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또 사람들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부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도 재분배 문제가 사회적인 issue입니다.

그러나 이는 system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소망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결코 소망이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게 최고라는 생각이 있는 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부활신앙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사람을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생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회만이 아닙니다. 유교경전에도 있고, 불교경전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을 때 한계적입니다. 진정한 이웃사랑도 부활신앙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신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소유에 대한 욕심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릴 복된 종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부활신앙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자 누가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은 후 부활의 산 소망을 덧입고 삶이 달라진 대표적인 한 사람을 예를 들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초대교회 성도 중 교회에 모범적인 영향을 끼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에서 탄생한 레위족 사람으로서 본명은 요셉이요, 바나바는 그의 훌륭한 인격과 삶을 보고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別名)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자(Son of Encouragement), 곧 위로의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자라도 이해와 사랑으로 품고 섬겨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야말로 삭막한 세상에서 사단과의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느라 피곤하고 지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외적으로 많은 핍박과 압박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낮아져서 성도들을 품고 섬기고 위로하는 종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그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충만히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그도 변화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넓은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생애를 본받는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배풀고 섬기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내 마음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힘든 일이 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면 그 사람을 통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활신앙을 덧입고 위로자가 되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바나바와 같이 7부 교회공동체

안에서 위로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II.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5:1-16)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영적인 공식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사탄의 공격이 외부로부터 오지 않고,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부활의 메시지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받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내놓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도 이 대열(隊列)에 있었습니다. 5:1,2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겉으로 볼 때 이들은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보고 제 2의 바나바가 나타났다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심판 받을 짓을 하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들 부부가 뜻을 같이 하여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다 바치고자 할 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다가 끝까지 순전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바치는 분위기 때문에, 혹은 체면상 안 바칠 수도 없고 다 바치자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판값을 다 가져온 것처럼 속인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치는 사람들의 믿음과 헌신적이고 자발적인 믿음의 자세를 보지 못하고 외적인 행동만 보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들의 내면을 보고 분별케 하셨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그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죄를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으며,**(5) **세 시간 후 그 아내 삽비라도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7-10)

그러면 이들이 땅값 얼마를 감춘 것이 왜 이토록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이들이 차라리 바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하나님과 베드로가 너무 심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이들 부부에게 동정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모두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한 물질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책망하였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4). 그들의 죄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막3:28,29)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사탄의 역사는 외적인 핍박으로 나타났습니다. 종교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사도들을 위협하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사탄의 역사는 쉽게 분별할 수 있고, 또 합심하여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에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사탄의 역사는 분별하기도 어렵고 마음의 죄와 싸우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까지 무서운 죄를 짓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마음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한마음, 한 뜻이 되어”(4:32),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하여”(5:3), “네 마음에 두었느냐?”(5:4)가 그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역사나 사탄의 역사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 역사함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가 마음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와 외적 행동은 잘 관리하지만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잠언 4: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잠언 16:32절을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마음을 다스리는데서 신앙과 인생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초대교회는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마음과 한 뜻이 되어 가족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겨 사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를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속이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을 무섭게 책망한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영입니다. 우리 마음에 사탄이 가득 차 있을 때 겉으로는 미소를 짓고 천사처럼 행동하나 속으로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해지게 됩니다. 아나니아는 성도들과 사도들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그것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라고 엄히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4b)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을 속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과 하나님을 속였다고 책망하였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가 사람에게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이기만 하면 아무도 모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한 것은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영적 무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양 무리를 섬기기 위해 모인 자발적인 신앙공동체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주와 복음역사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자진하여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순수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시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주체자로 세우시고 구원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이나 상급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상급을 얻고자 할 때 외식과 형식으로 흐르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자에게 침투하여 주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게 만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던 자였는데 실제로는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 하였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한 것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기 쉽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사탄은 참으로 교활하고 음흉하고 무서운 존재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진실 되게 투쟁하고 헌신적으로 주의 역사를 섬기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사탄은 성령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배가 아파서 도저히 보고 있질 못합니다. 예

텐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사탄은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뱀의 모양을 하고 찾아와서 온갖 거짓말과 입에 바른 말로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꾀계를 분별하지 못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인류최초의 교회공동체인 house church가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파괴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벧전5:8)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과 탐심을 심어서 한사코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키고, 신앙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을 심어서 할 수 있는 대로 십일조를 절대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연애감정에 빠지게 하여서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결국에는 실족하게 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면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고 이중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소감도 잘 쓰는 것 같지만 피상적이고 고상한 죄만 회개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감춘 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근본적으로 그 속성자체가 속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마음을 다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들의 속마음도 때가 되면 다 드러내십니다. 역대상 28: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신다고 하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였습니다(계1:14, 계2:18, 계19:12).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이며 초대교회에 발생한 매우 불행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냥 지나갔어도 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다룬 것같이 보이며, 그의 심각한 자세로 인하여 피할 수 있었던 불행을 자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초대 교회에 미친 영향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온 교회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임하였습니다.(5,11)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5b)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워해야 할 분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무력하게 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사람을 진리에 복종하게 하고, 보이지 아니하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합니다. 어린 아이가 가정에서 어머니를 두려워 아니하고, 아버지마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되면 그 가정의 가정교육은 끝이 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는 함부로 행하고 자행자지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두려운 줄을 모르면 방자히(放恣-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고 건방지다) 행하게 되고, 교만히 행하게 되며 죄악과 패망의 길을 두려운 줄을 모르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1:7)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를 지키고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는 외적인 핍박을 통하여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가 외부의 핍박 앞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믿음과 기도로 싸우며 더욱 담대히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는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갔습니다. 외부의 핍박을 통해 초대

교회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사탄은 이제 내부적으로 파괴되어 성령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자 시도하였습니다. 내적인 시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너무나도 교묘하고 은밀하게 파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도들에게는 심각하게 의식되지도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식물의 내부에 숨어 있는 한 마리의 작은 벌레가 가장 거센 폭풍보다도 더 파괴력이 강한 것처럼, 어떤 외적인 핍박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죄는 누룩과 같아서 금방 성도의 공동체 전체에 퍼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죄가 용납되었다면, 초대교회 내에는 얼마가지 못해 뜨거운 사랑의 역사, 진실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역사는 사라지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한 거짓과 속임수, 체면과 위선의 인본주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탄은 그들을 통해 위선과, 거짓의 누룩, 인간의 영광만을 구하는 인본주의의 누룩을 퍼뜨려 이제 막 초대교회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순결한 성령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와해(瓦解-기와의 깨진다는 뜻으로, 조직이나 계획 따위가 산산이 무너지고 흩어짐을 이르는 말)시켜 놓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커다란 제방을 무너뜨리듯이 작아 보이는 죄악이 성령의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사탄의 역사를 분별케 도우시고 초대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이들의 죄를 매우 엄하게 다루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감독자로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敎訓)을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잘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두어야 할 것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고 신앙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는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함을 깨우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의 목적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있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거짓되게 행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자기 인생회복이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매순간마다 불순한 신앙 동기나 목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외심이 없을 때 신앙생활이 형식과 외식에 머무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배은망덕하게 됩니다. 성도 상호간에도 불신과 판단과 미움으로 신앙공동체는 분열되고 세속적이 될 것입니다. **교회역사는 사람이 좌지우지(左之右之-왼쪽으로 돌렸다 오른쪽으로 돌렸다 한다는 뜻으로, 사람이 어떤 일이나 대상(對象)을 제 마음대로 처리(處理)하거나 다루는 것)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듭남과 구원, 그리고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십니다. **이뿐 아니라 성령은 사탄의 거짓 역사를 드러내어 제거하시고 친히 남은 자의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신앙생활에서 영성과 거룩함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인간적인 공동체가 될 만한 시험을 잘 극복하고 분명하게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며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12-16)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 인본주의를 제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자 초대교회 가운데 권능의 역사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자들도 교회의 영적권위를 존중하고 칭송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욱 많아져서 남녀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에만 접촉해도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구하는 인본주의가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이 더욱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처럼 강력한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내면의 인본주의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 7부는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진실하게 헌신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고 순수하게 양들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힘 있는 모임이고 초대교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같은 요소들이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진실하게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하여서 성령에 붙들린바 되어 힘 있게 학생 제자양성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사탄은 끊임없이 외적 내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교훈삼아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덧입고 엄위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